자조금 제도의 개념 및 유래

농축산업 중 많은 부분이 값싼 수입산과 힘겨운 대결을 펼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록산업 역시 값싼 외국녹용의 수입에 의한 시장잠식 및 국산녹용의 소비부진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현실에서 양록인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조금제의 도입 및 활성화가 절실한 실정으로 본회는 양록자조금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미 타 축종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이 제도를 도입,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소비확대와 연구를 통한 품질차별화를 시행해 나가며 자조금제도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그렇다고 이 제도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임의 자조금제도인 현행상 원하는 농가만 참여, 무임승차하는 농가들로 인해 자조금제도에 참여하는 이와 참여치 않는 이의 불협화음은 계속되고 이로 인해 스스로를 살리기 위한 제도가 자칫 내부적 갈등요소로 등장할 여지도 배제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산자단체들이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이유는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실효성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낙농육우협회를 비롯, 양돈협회, 양계협회 등 자조금제도를 통한 성공사례들이 속속 들려오면서 자조금제도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 값싼 외산과의 힘겨운 경쟁, WTO시대의 정부지원 한계라는 악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으로 그 입지를 확실히 굳혀가고 있다.

본회는 올해부터 양록자조금제도를 적극 도입키로 하고 관련 자료를 입수, 규정(안)을 만들고 운영방안을 검토하는 등 발빠른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자조금제도의 유래 및 활용방안 등을 살펴보고 그 실효성을 검토해 본다.

1. 자조금 유래

자조금제는 20세기초에 서구에서 싹이 텄다고 한다. 민주정치와 자본경제, 그리고 산업사회가 발전됨에 따라 그런 체제 속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 사람들끼리 스스로의 문제를 공동으로